

韓 · 日間の 文字交流에 대하여

-佛敎 文化의 흐름 속에서 古代 韓 · 日關係를 照明함-

金永旭
(서울시립대)

1. 緒言

漢字 · 漢文의 受容·傳來 問題는 동아시아文化史 研究의 핵심코드이다. 니시지마(西嶋定生)¹⁾의 동아시아文化論에서도 漢字文化가 核心事案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동아시아文化圈을 ‘漢字文化圈’이라고 規定하였다. 니시지마 교수는 漢代 以後 內陸에서 정착된 冊封 體制가²⁾ 907년 唐의 滅亡으로 崩壞가 始作되었다는 것이다. 內陸에 이어 半島에서는 북쪽의 渤海가 926년에 滅亡, 남쪽의 新羅는 935년에 滅亡하고 이 시기에는 베트남도 中國 王朝의 直接支配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國풍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當時의 重要한 동아시아文化現象으로 遼에서는 거란文字, 日本에서는 가나文字가 創案되어 변방의 국가들이 자국의 문자들을 가지게 되었고 日本의 가나文字도 國風時代에 創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나가 國風時代에 副應하여 創案되었다는 假說은, 최근의 한 조

-
- 1) 니시지마 사다오(1919-1998) 교수는 戰後 日本의 동양사학자로 도쿄대학에서 근무하였다.
 - 2) 책봉이란 관작을 수여할 때에 황제가 주는 임명서인 冊命에 의한 임명 행위를 가리키는 행위로 이것을 지탱하는 정치 사상이 中國의 중화사상이며 왕화 사상이다 (이성시2001: 142~5). 맹자에서 확립된 事大 思想과 王道 政治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拙著2001: 122~132).

사 연구의 결과에 따라 再考를 要하게 되었다. 小林芳規 教授는 2002년 6월, 大谷大學藏本の 判比量論에서 聲調符, 合符, 節博士, 文字 등이 角筆로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고바야시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7세기 중반의 것이며 여기에 새겨진 文字는 新羅語임이 分明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漢字의 省劃字로 만들어진 新羅文字가 있었는데 이것은 日本片假名の 起源을 밝힐 수 있는 重要な 端緒라고 하였으며, “日本 訓點의 發想은 新羅에서 起因한 것으로, 新羅의 文字가 日本에 傳해졌을 可能性이 높다”고 發表하였다.

西嶋教授의 東아시아론으로는 小林教授의 八世紀 新羅文字의 日本傳來說을 說明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小林教授는 그해 六月의 發表以後, 內容을 補強하여 翌年三月에는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라는 題下의 論文을 發表, 以前의 主張을 精密하게 展開하였고 2003년 十二月에는 奈良 東大寺의 國際심포지움에서 ‘奈良時代の角筆訓點から觀た華嚴經の講說’이라는 講演을 하면서 新羅 角筆에 관한 새로운 資料들을 追加하였다. 判比量論 외에도 華嚴刊定記, 華嚴文義要訣 등에서 新羅點吐와 返讀符號를 確認하고 神護景雲書寫 華嚴經에서 新羅點吐의 影響을 確認하였던 것이다. 新羅文字의 日本傳播는 佛教文化의 傳達過程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過程에서는 8世紀前半, 新羅에서 遊學하고 歸朝한 審祥이 重要な 役割을 하였다는 것이 고바야시 교수의 結論이다.

最近에 發表된 고바야시 教授의 論文들은 韓日文字交流史 問題에 있어서 劃期的인 認識의 變化를 가져왔다. 그러나 文字交流에 있어서 佛教의 役割에 대한 具體的인 論議에는 이르지 못했고 審祥의 國籍 및 役割에 대한 論議도 再考의 餘地가 있다. 또 東아시아의 佛教文化와 關聯하여 印度와 中國 그리고 新羅를 아우르는 論議가 없었다. 奈良時代에는 華嚴宗이 隆盛했었는데 그것의 뿌리가 된 것은 新羅의 華嚴學이었다. 이것을 鼎立하고 學派를 形成했던 義相 大師에 관한 論議도 充分하지 않았다.

이 글은 고바야시 教授의 論議를 바탕으로 하되 古代 韓日間의 文字交流와 關聯된 몇 가지 問題를 좀더 補強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동안, 東아시아의 文字史를 論議할 때에 漢字의 受容 樣相을 中心으로 중국, 한국, 일본과

의 관계 해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베세토(Be-Se-To) 벨트로 表象되는 三國의 文化的 相關 關係가 韓·日文字史의 究明에 重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동아시아의 文字史를 보다 精密하게 說明하기 위해서는 韓中日 외에도 印度 文化와 佛敎라는 것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 印度의 文化가 佛敎라는 배를 타고 中國을 거쳐서 韓國과 日本에 上陸한 것은 常識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韓·日間の 文字史에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具體的으로 論議된 바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듯하다. 既存의 동아시아 文字談論에 대한 하나의 補充 作業으로, 8世紀를 前後한 時期에 韓·日間の 文字交流가 어떠한 樣相을 띠고 있었는지를 印度와 佛敎라는 것을 考慮한 바탕에서 살펴볼 것이다.

2. 角筆과 가네사의 빨

韓國에서는 2000년에 角筆文獻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角筆스코프의 도움으로 가능한 發見이었는데 스코프는 古書에 損傷이 가지 않도록 紫外線이 덜 發光되는 電球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반사 렌즈, 그것의 전면에 紫外線을 二重으로 遮斷하는 특수 유리를 부착한 것이다. 스코프의 빛을 古書의 上端에서 40~50센티미터 정도 떨어지게 하여 書冊에 비스듬히 비추면 角筆이 새겨진 紙面의 오목한(凹) 부분에 희미한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 그 부분을 觀察하거나 볼록렌즈로 擴大하거나 카메라로 近接攝影하면 角筆을 確認할 수가 있다.

筆記具와 文字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筆記具가 무엇이었느냐에 의해서 文字의 書寫 方式이나 文字의 體系도 影響을 받을 수 있다. 동아시아의 傳統의인 書寫 道具로는 끝이 부드러운 毛筆 외에, 角筆이 있었다. 角筆은 象牙나 나무 혹은 鉛鐵이나 대나무 따위를 재료로 삼아 그것을 연필처럼 길쭉하게 다듬고 그 끝을 뾰족하게 깎아 만든 것이다. 그 뾰족한 끝을 종이 위에 눌러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角筆로 써어진 글자는 紙面에 오목한(凹) 痕迹을 남기지만 毛筆과는 달리, 墨書나 朱書,

白書처럼 색이 묻어 있지 않아서 肉眼으로는 글씨가 쉽사리 確認되지 않는다. 角筆은 毛筆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필기도구이지만 毛筆이 日常화된 이후에도 한참동안 쓰였다. 이것은 角筆로 쓰면 글씨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서 使用者 間의 秘密을 維持할 수 있다는 점과 벼루나 먹과 같은 附帶道具 없이도 펜 하나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記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³⁾

角筆로 새겨진 符號나 文字에는 漢文經典을 해독하기 위한 訓讀, 聲調, 句讀, 吐, 解釋順序表示, 寫經의 矯正符號, 節博士(佛經朗誦을 爲한 梵唄의 樂譜) 등이 있다. 日本에서는 40여년 전에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現在까지 3,200여점이 確認되었다. 中國에서는 二千年前の 漢代木簡에서 오목하게 (凹) 패인 角筆이 確認된 바 있고, 敦煌文書에서도 確認된 바 있다.⁴⁾ 韓國에서는 나무에 칼로 문자를 새긴 百濟木簡이 있으며⁵⁾ 종이에 새겨진 것으로는 誠庵古書博物館所藏의 金剛般若波羅蜜經에서 校訂符號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角筆符號가 發見되었다.⁶⁾ 이처럼 韓國에서는 百濟時代부터⁷⁾ 朝鮮後期까지 角筆關聯 資料들이 發見되는데⁸⁾ 角筆에 관한 記錄이나⁹⁾ 古代的 筆記道具로 보이는 七世紀鐵製遺物이 出土된 바 있지만¹⁰⁾ 아직 완전히 確認된 것은 아니다. 現在 태고중 계열의 寺刹에서 시슴빨로 만든 것으로 짐작되는 角筆이 제주도에 傳하고 있고 日本에서는 에도(江戶)시대

3) 角筆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로 佛家를 중심으로 경전을 새기거나 경전에 주석을 달거나 계송의 음률을 표시할 때 사용하였다.

4) 小林芳規(2003다: 59)을 參照.

5) 筆者는 2003년 5월, 부여박물관에서 칼로 새긴 듯한 百濟木簡을 본 적이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2002년에 발간한 '백제의 문자'라는 題下의 圖錄(90면)에서도 確認할 수 있다.

6) 여기에 대해서는 李丞宰(2000: 149)를 參照.

7) 百濟時代의 文字生活에 關한 全般的인 說明은 鄭在永(2003)을 參照.

8) 筆者가 확인한 것은 修德寺 所藏의 法華經으로, 이 책은 壬亂 以後에 刊行된 것이다.

9)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의상대사의 傳敎過程을 기술한 내용에 각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있다.

10) 궁남지 출토 철제 도구에 대한 설명은 拙稿(2003: 296~7)을 참조할 수 있다.

에 사용했던 角筆이 現在까지 傳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무로 만든 것이다.

角筆의 使用에 대한 記錄으로 現在까지 알 수 있는 最古의 것은 대각국사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이다. 여기에는 의상 대사의 ‘要義問答’과 ‘一乘問答’에 대해 다음과 같은 註釋을 달았다. “宋僧史義湘傳云 惑執筆書紳懷鉛札葉 抄如結集 錄似載言 如是義門 隨弟子爲目 如云道身章是也 或以處爲名 如云錐穴問答云云 但以當時集者 未善文體 遂致章句鄙野 雜以方言 或是大教濫觴 務在隧機耳 將來君子 宜加潤色” 여기에서 注目할 구절은 ‘惑執筆書紳懷鉛札葉’이다.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기도 하고 혹은 납을 품고 다니면서 木札에 글을 새기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筆’과 ‘鉛’이라는 2가지의 筆記道具가 등장한다. ‘筆’은 毛筆임에 틀림이 없지만 ‘鉛’이 무엇인지가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었는데 이것은 납과 같이 금속성으로 된 硬筆의 일종이 아닌가 한다. 木札에 글자를 새길 수 있는 필기도구는 금속성이나 단단한 뼈와 같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鉛’은 금속성 재료이므로 이것으로 나무에 글을 새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의상 대사는 알다시피, 당나라 수도인 장안의 종남산 자락의 지상사라는 절에서 당시 중국 화엄학의 대가였던 지엄 스님의 문하생이었다. 의상이 사용했던 불경의 서사 방식은 중국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필자는 중국에서 각 필의 사용에 관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角筆에 사용된 재료 중에는 사슴의 뿔이나 코끼리의 어금니 등을 들 수 있겠는데, 象牙가 필기구로 쓰였다는 것은 비록 神話的인 것이기는 하나 印度에서 그 痕迹을 發見할 수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고대 서사시로는 라마야나(Ramayana)와 마하바라타(Mahabharata)를 들 수 있다. 14살 때에 계모에 의해 정글 추방된 아요디아(Ayodhya) 왕국의 라마 왕자를 도운 원숭이 하누만(Hanuman)의 이야기는 중국의 고전인 ‘西遊記’의 한 원형이거나 현재 인터넷에서 젊은이들이 愛用하는 아바타(Avatar)도¹¹⁾ 인도의 문화에 그 원형이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인

11) 아바타는 화신incarnation이라는 뜻인데 생명 불멸이라는 힌두이즘에 근거하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석가모니도 인도의 삼신(Brahman--창조의 신, Vishnu--유지의 신, Shiva--파괴의 신) 중의 하나인 비슈누의 화신으로 믿고 있다.

도가 한국과 일본에 그리 멀지만은 않다. 마하바라타는 선과 악의 전쟁을 그린 서사시로 고대 인도의 성인인 비아사(Vyasa)가 口述하고 가네샤(Ganesha)가 받아 적었다는 것이다. 가네샤는 힌두교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다. 가령 한국에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거나 상량식을 할 때에 돼지머리를 놓고서 고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인도에서 가네샤의 상을 모시고서 하는 일이 아무런 장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곤 한다.

그런데 가네샤는 시바 신의 아들로, 코끼리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말하자면 반인반수의 형상이다. 이때 가네샤의 코끼리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설명이 따른다. 가네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 어금니가 잘려져 있다. 사실 어떠한 신상이라도, 그것이 동물의 형상이든 인간의 형상이든, 완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일 터인데 가네샤의 코끼리 얼굴에는 왼쪽 상아만 있고 오른쪽 상아는 부러져 있는 것이다. 신화에 따르면, 가네샤의 오른쪽 상아는 성인의 말씀을 기록하는 필기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가네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성인인 비아사가 구술하고 있는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내용을 상아의 뾰족한 끝으로 종이에 눌러 적고 있는 그림이 있다. 象牙로 씌어진 글은 신성함을 의미하거나와 사슴의 뿔도 가네샤의 뿔과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과 일본에는 코끼리가 자연적으로 서식하기 어려웠겠지만 사슴은 그렇지 않았다. 부처가 처음으로 법을 전한 곳은 鹿野苑이다. 지금도 절에 가면 鹿苑轉法の 광경을 새긴 조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角筆의 根源과 그것의 宗教的 含意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서는 실증적인 문헌자료로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象徵的 解釋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만 角筆이 중국의 漢字文化에서 派生했다기보다는 인도의 口述文化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漢字文化에 짝을 이루는 것이 毛筆이라면, 口述文化에 짝을 이루는 것이 角筆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元曉와 假名

判比量論은 元曉師가 55세에 지은 佛書이다(咸亨二年, 671년). 이 책은 唯識學者인 후키하라(富貴原章信)의 ‘判比量論の研究’로 學界에 알려졌으며 原所藏者는 칸다(神田喜一郎)先生이다. 先親인 香巖居士의 淨土歸還五十週年記念으로 父親愛藏古寫經中, ‘判比量論’을 選定, 佛恩報謝로 影印할 當時, 唯識學의 大家인 大谷大學의 후키하라教授에게 解説을 付託하였다.¹²⁾ 칸다先生은 1984년에 死亡, 그 해에 유족들이 칸다所藏書들을 大谷大學에 寄託하고 ‘判比量論’은 大谷大學藏本이 되었다. 以後로 ‘判比量論’은 文化財로서의 價値를 認定받아 昭和63년(서기 1988년) 6월, 日本重要文化財로 指定되었다.¹³⁾ 韓國에서 判比量論에 관한 佛敎學的·哲學的 研究는 있었지만¹⁴⁾ 文字史的인 觀點에서의 照明은 거의 없었다.

判比量論을 日本에 傳한 審祥이 新羅留學僧인지 아니면 新羅學僧인지도 如前히 論議가 되고 있다. 위의 事案들은 古代韓日間の 佛敎交流史와 관련이 있고 韓國口訣文字나 日本가나文字의 起源과도 關聯이 있어서 複雜하고 微妙한 樣相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判比量論의 傳來過程이나 그 속에 새겨진 文字들에 關한 具體的 解明이 없이는 判比量論에 關한 根本的인 問題가 解決되기 어려울 것이다.

元曉사를 비롯한 新羅高僧들이 그들의 佛敎文化를 日本에도 傳播하여 日本 화엄학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시 일본에서는 新羅學者들을 매우 중요한 國賓으로 맞이했던 듯한데 여기에 대한

12) 富貴原章信(1969)를 參照.

13) Otani University Library(1998: 50)를 參照.

14) 判比量論의 佛敎學的·哲學的 研究는 韓國에서 活氣를 띠고 있다. 既存의 解讀을 綜合하고 새로운 解釋을 가한 김성철 敎수의 ‘원효의 判比量論(2001)’에 이어 ‘원효의 判比量論 기초 연구(2003)’라는 단행본이 나왔다. 김상일 敎수는 논리철학의 觀點으로 元曉哲學을 西洋의 知的傳統과 比較하였는데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이된 원효의 判比量論(2003)’이 그것이다. 判比量論의 研究는 두 권의 力著로 상당한 水準에 到達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은 誓幢大師碑文에서 살펴볼 수 있다. “大曆之春 大師之孫 翰林 字仲業 ○使滄溟○○日本 彼國上宰 因○語諸人○○其淨刹” 경주 고선사의 誓幢和尚塔碑文은 신라 혜공왕대(756-780)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에 따르면 大曆年間(766-779)에 元曉大師의 孫子인 翰林 薛仲業이 日本에 派遣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국 재상이 안내하여 사찰을 순방하고 밑씀으로(因語) 사찰을 정화했다는 기록은 원효대사의 사상과 학문이 그의 손자 혹은 후학들에 의해서 일본으로 전파되었음을 의미한다.

2003년 2월에 筆者는 小林芳規 教授의 協助과 오타니大學博物館의 키무라(木村宣彰)官長, 키마(木場明志)教授, 오자키(尾崎政治)司書の 厚意로 ‘判比量論’을 調査할 수 있었다. 午前부터 調査가 始作되었지만 成果는 없었고¹⁵⁾ 午後에는 스코프 2대로, 빛의 角度와 光度를 微細하게 調整하면서 ‘根’의 오른쪽을 集中的으로 觀察하였다. 한참 후, ‘根’의 오른쪽에 새겨져 있는 痕迹이 일정한 모양으로 筆者의 눈에 잡혔다.¹⁶⁾ 두번째 글자인 ‘\’는 古代國語借字인 ‘是’에 對應하는데 첫째인 ‘ㄷ’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¹⁷⁾ 그렇지만 小林教授의 主張처럼 ‘部’가 아닌 것은 分明해 보였다. 그는

-
- 15)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李丞宰 教授가 午前の 觀察結果와 所感을 筆者에게 이야기하였다. 角筆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部利’가 ‘불휘(>뿌리)’에 對應된다는 小林 先生의 主張은 韓國의 借字表記用法에 비추어 볼 때에 그 可能性이 稀薄하고 ‘部’가 아니라 ‘火’라면 可能性이 있다고 하였다.
- 16) 그 瞬間을 捕捉하여, 옆에 있던 鄭在永 教授와 西村浩子 教授에게 確認을 要請하였다. 두 개의 角筆字가 ‘根’의 오른쪽에 비스듬히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問題는 觀察의 結果가 相異하다는 데에 있었다. 둘째의 ‘\’에 대해서는 觀察의 結果가 같았지만 첫째는 差異가 있었다. 小林教授와 鄭教授, 筆者는 各自의 觀察結果를 펜으로 그려서 對照해 보기로 하였다. 小林教授는 ‘ㄷ’로, 鄭教授는 小林教授보다는 약간 길게 ‘ㄷ’, 筆者는 ‘ㄷ’로 鄭教授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렸다.
- 17) 이것은 조사한 후로 이틀 후에 우연히도 해독하게 되었다. 히로시마의 미야지마(宮嶋)에 산수 구경을 갔었는데 二月의 靑梅, 紅梅가 滿發한 길을 따라 山頂으로 가는 길에서도 필자는 判比量論의 첫글자인 ‘ㄷ’에 대한 疑問을 떨쳐버리지 못했는데 몸은 어느새 중턱의 山寺에 到着하고 山寺의 懸板에는 ‘靈火不滅’이란 글씨가 草書가 있었다. 신령스러운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懸板에 쓰인 ‘ㄷ(火)’를 읽는 순간, 불현듯 그토록 苦心했던 ‘ㄷ’은 다름 아닌, ‘ㄷ’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ㄷ’가 百濟木簡에서 用例가 確認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로 두번째 획이 길게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觀察된 ‘ㄷ’와 ‘\’의 刻入角度가 垂直이 아닌 점은 重要的 端緒가 되었다. 10° ~ 15° 정도의 傾斜가 바깥쪽으로 있는데 이것은 韓國의 角筆文獻인 瑜伽師地論이나 華嚴經, 法華經 등의 角筆口訣字가 刻入되는 角度와 類似하기 때문이다. ‘\’의 경우, 첫 획이 짧고 두번째 획이 긴 점도 韓國角筆字와 一致한다.

判比量論에 角筆이 있다는 것은 分明해졌다. 合符인 알과線과 베타線은 스크프 1대로 비추어도 보일 정도로 鮮明하였고 形體를 分明히 認知하기는 어려웠지만 角筆의 先尖으로 새겨진 痕迹들이 散見되었다. 그런데 判比量論을 全般的으로 살펴보니 두 가지 종류의 刻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는 날카로운 角筆先尖의 痕迹이었고 나머지는 제법 우묵하여 다소 퍼진 듯한 것이었다. 韓國에서는 보지 못했던 現象인데 이것은 아마도 補修過程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¹⁸⁾

元曉의 判比量論을 日本에 傳來한 분은 大安寺의 審祥으로 되어 있다. 審祥은 日本人으로 新羅에 遊學하여 華嚴學을 工夫한 후, 日本에서 最初로 華嚴經을 講說하신 분이라고 한다.¹⁹⁾ 여기에 관한 記錄으로는 凝然의 ‘三國

‘ㄷ’의 윗부분과 아래의 일부는 判比量論을 補修하는 過程에서 毀損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根’의 새김은 ‘部利’가 아니라 ‘火是’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불이’로 읽혔을 터인데 中世國語로는 ‘불휘’이고 現代國語에서는 ‘뿌리’에 해당하는, 각필로 새겨진 현전 최고의 신라어였던 것이다.

18) 鄭在永 教授와 筆者는 午後의 마지막까지, 判比量論에 매달려 오묘조묘 살폈다. 책의 뒷면에서는 判比量論을 補修한 痕迹도 있었다. 에도(江戶)時代に 補修했다는 博物館 關係者의 說明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시대의 補修方式과 전혀 다른 방식의 痕迹도 있었다. 再昨年에 湖巖博物館의 뒤면에 위치한, 文化財修理所에서 筆者가 보았던, 말하자면 ‘最尖端 壓捺式 補修工法’으로 修理된 痕迹으로 斟酌되었지만 博物館 關係者는 이러한 補修過程에 대한 記錄이 없다고 하였다. 鄭在永 教授는 아마도 칸다先生이 判比量論을 所藏했을 當時, 모종의 수리가 있었을 것으로 推定, 判比量論에 보이는 壓捺式 補修는 적어도 60년대 이후에나 가능한 修理法일 것이라고 하였다.

19) 小林教授는 아마도 ‘新羅學生’을 新羅留學生으로 解釋하여 審祥을 日本人으로 推定한 듯하다. 普機의 華嚴宗一乘開心論에 있는 ‘靑丘留學華嚴審祥大德(大日

佛法傳通緣起'가 있다.²⁰⁾

天平十二年²¹⁾ 始所講之者 乃是舊譯六十華嚴 新羅學生大安寺審祥大和尚屬講弘之選 初演此宗(……) 既以勅詔爲宗講師 于時請慈訓小僧都興福寺最初別當 鏡忍僧都 円證大德 以爲復師 請十六德 爲其聽衆 首尾三年講六十經 一年二十卷 三年之中終六十卷 以探玄記講六十經 審祥禪師三年終經 (凝然의 三國佛法傳通緣起 卷中 華嚴宗)

그러나 심상이 主席했던 大安寺는 주로 外國僧侶들을 招請한 곳이며 審祥이 渡日할 때에 新羅에서 가져온 華嚴經論七帙에 新羅村落文書가 나왔다는 事實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²²⁾ 經을 묶었던 帙 속에 文書가 있었다는 것은 심상이 直接的이든 間接的이든 文書와 關聯이 있음을 示唆한다. 或, 文書와 關聯이 없다 하더라도 留學生의 身分으로는 新羅의 村落文書들을 接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심상과 關聯된 韓國의 記錄으로 慶州皇福寺의 金銅舍利函銘文이 있다. 皇福寺는 新羅 眞德女王 六年(서기 652년)에 義相師가 出家한 절이다. 그 절터에는 당시의 三層石塔과 十二支象, 龜趺 따위의 石材遺物이 남아 있는데 三層石塔의 二層 屋蓋石에서 金銅舍利函이 發見되었다. 거기에는 18行 345字의 銘文이 있고²³⁾ 1行부터 15行의 아홉 번째

本佛敎全書 卷13: 28)에 기대면 小林教授의 說이 有力하겠지만 東大寺記錄에는 '新羅學僧審祥'으로 되어 있어서 審祥의 國籍을 斷言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法名도 '審祥' 또는 '審詳'으로 되어 있다.

20) 小林芳規(2003다)를 參照.

21) 西紀 740年.

22) 華嚴經論의 日本流入과 流通狀況에 대해서는 尹善泰(2000: 34~47)을 參照.

23) 皇福寺 金銅舍利函은 1932년에 慶州市 九黃洞에서 發見되었으며 銘文은 다음과 같다. 1행: 夫聖人垂拱 處濁世而育蒼生 至德無爲 應閻浮而 2행: 濟群有 神文大王 五戒應世 十善御民 治定功成 3행: 天授三年壬辰七月二日乘天 所以神睦太后 4행: 孝照大王 奉爲宗厝(?)聖靈 禪院伽藍 建立三層石 5행: 塔 聖曆三年庚子六月一日 神睦太后 遂以長辭 6행: 高昇淨國 大足二年壬寅七月廿七日 孝照大王 7행: 登霞 神龍二年丙午五月卅日 今主大王, 佛舍利 8행: 四 全金彌陀像六寸一軀 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 9행: 卷 安置石塔第二層 以下以此福田 上資神文大 10행: 王 神睦太后 孝照大王, 代代聖厝(?) 枕涅盤之山, 11행: 坐菩提之樹 隆

까지는 石塔의 建立 經緯와 그 속에 安置한 物名이 있고²⁴⁾ 이어서 發願文이 있는데 15行 열 번째 글자부터는 佛事に 關係한 官吏들과 僧侶들의 職名이 있다.

筆者는 心尙(心尙)에 관한 記錄을 거기에서 發見하게 되었다.²⁵⁾ 이것은 오로지 國立慶州博物館에서 2002년에 發刊한 ‘文字로 본 新羅’라는 冊 一部分이다. 銘文의 17行에는 아래의 글이 새겨져 있다. 銘文이 새겨진 年代는 神龍二年(706年)이다. “摸 韓舍季歷 塔典 僧惠岸 僧心尙 僧元覺 僧玄防 韓”. 僧 心尙은 皇福寺 三層石塔의 造成에 關與했던 塔典이었던 것이다. 皇福寺의 心尙(心尙)은 大安寺의 心尙(審詳, 審祥)과 比較할 만하다. 첫째, 活動年代가 前後로 이어진다. 둘째, 心尙과 審詳은 華嚴學僧이었다.²⁶⁾ 셋째, 新羅帳籍이 新羅王室과 關聯된 것인데 心尙이 塔典으로 있었던 皇福寺는 新羅王室의 願刹이었다. 이러한 事案으로 보아 大安寺의 審詳이 新羅學僧이었다는 東大寺의 記錄과 皇福寺의 心尙이 塔典이었다는 皇福寺의 記錄은 前後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判比量論에는 ‘內家私印’이라는 朱方印이 卷末의 廻向偈부터 識語에 結

基大王壽 共山河同久 位與軋川 12행: 等大 千子具足 七寶呈祥 王后 體類月精 命同劫 13행: 數 內外親屬 長大玉樹 茂實寶枝 梵釋四王 威德增 14행: 明 氣力 自在 天下太平 恒轉法輪 三塗勉難 六趣受 15행: 樂 法界含靈 俱成佛道 寺主 沙門善倫 蘇判金 16행: 順 金興宗 特奉教旨 僧令携(?) 僧令太 韓奈麻阿 17행: 摸 韓舍季歷 塔典 僧惠岸 僧心尙 僧元覺 僧玄防 韓 18행: 舍一仁 韓舍全極 舍 知朝陽 舍知純節 匠 季生 關溫

24) 銘文에 의하면 新羅 曉照王이 神文王을 위하여 692년에 三層石塔을 建立한 후, 聖德王이 曉照王과 神陸太后를 위하여 706년 5월 30일에 佛舍利 4개와 6寸의 阿彌陀佛像 1軀, 無垢淨光大陀羅尼經 1卷을 塔 안에 다시 넣었다고 되어 있지만 명문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塔에서는 立像과 坐像의 純金製佛像 2점이 發見되었다.

25) 漢字가 다르다는 것이 問題가 될 수도 있다. 心尙과 관련하여 心尙, 審詳, 審祥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의상의 경우에도 義相, 義想, 義湘 등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拙稿(2003가: 50~3)을 參照.

26) 皇福寺는 義相大師가 主宰했던 곳으로 華嚴學과 關聯된 寺刹이었으며 新羅皇室의 願刹이었다.

쳐서捺印되어 있다. 이朱方印은聖武天皇의夫人인光明王后(701~760)의藏書印이므로判比量論의寫經下限年代는760年이다.²⁷⁾ 그러나朱方印아래에角筆이있으므로捺印以前에角筆이새겨졌음을알수있고角筆은寫經과同時였다는證據가있으므로²⁸⁾大谷大學藏本判比量論은七世紀末부터八世紀前半사이의古寫經임을알수있다.韓國의最古新羅寫經은湖巖博物館所藏의‘新羅白紙墨書(755년)’이다.이보다는最高로80餘年이나이른시기의大谷大學本判比量論에는當代人이直接새긴資料가있다는점에서그言語學的價値가높이評價된다.그속에는釋讀表記,聲調符,節博士,合符,校正符號,文法形態등,현재까지角筆文獻에서보여진것들보다더根源의인資料들이담겨있으며七世紀또는八世紀前半期の紙質과寫經體도研究할수있는資料이다.

南豊鉉(2002: 78)은三國史記에記錄된‘以方言讀九經’을解釋하면서이때의‘方言’은다름아닌釋讀口訣을뜻하는것이고薛聰의時代에釋讀口訣이存在했을것이라고하였다.判比量論의角筆은七世紀末또는八世紀前半에新羅에서經典을釋讀한생생한證據이므로南豊鉉(2002)의論議를 뒷받침하고있다.新羅人이經典을釋讀했다는證據는‘ㄷ, \’以外에도, ‘餘’를‘多留(*다르/르-)’로釋讀한角筆의예를들수있다.文法史의觀點에서注目이되는例는處所格助詞‘良(ᄃ)’의存在이다.判比量論의本文第9節26行의‘今於此中直就所詮而立比量’에는‘中’의오른편에‘良(ᄃ)’이刻入되어있다.古代國語의處所格助詞로는‘-ᄃ, -+, -ᄃ+’등이있었는데‘-ᄃ’의用例가七世紀末資料에서確認된다는點에서이것은處所格助詞研究의重要한端緒이다.²⁹⁾

27) 小林芳規(2003가: 8~9) 參照.

28) 이것은알과形合符가시작하는‘聖’字의終劃의墨이角筆로지워져서그角筆의눌린자국(凹)에墨의검정이흘러들어가있는데이것은本文이墨筆로書寫되고그墨이채마르기도전에角筆이記入되었음을알려준다.자세한사항은小林芳規(2003가: 15~6)을參照.

29) 處所格助詞의發達過程에대해서는‘-ᄃ+’에서‘-ᄃ’와‘-+’가發達되었을수도있지만‘-ᄃ+’가新形이었을가능성도있다.여기에대해서는拙稿(2003나.

判比量論에는 校正符號인 ‘レ’가 墨書로 附記되어 있다. 글자가 重複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削除하라는 뜻이다. 符號의 發達過程과 그것의 機能 및 形態變化에 대한 追跡은 古寫經의 流通經路나 影響關係를 밝히는 데에 重要的 端緒를 提供한다.³⁰⁾ 이러한 符號는 ‘新羅白紙墨書(755년)’의 ‘華嚴經寫經造成記’에도 있으며 ‘華嚴文義要訣(佐藤本, 800年頃)’에도 있고 新羅木簡에서도 確認할 수 있다. 新羅 城山山城出土 木簡에서 ‘レ’이 發見되었는데 이것은 顛倒符로 글자의 順序를 앞 글자와 바꾸라는 뜻이다.³¹⁾ 이러한 表記法은 日本의 古寫經에서도 確認되지만 韓國木簡이나 新羅寫經에서 보여주는 證據들은 七世紀 또는 八世紀이므로 韓國의 木簡 惑은 寫經의 符號가 日本에 流入되었음을 示唆한다.

小林教授는 新羅角筆에서 漢字의 偏 혹은 旁을 利用한 省劃字가 日本에 傳來되어 片假名 形成에 影響을 주었으리라는 主張을 했지만 그것의 證據로 提示한 ‘部’와 ‘利’의 例는 檢討를 要한다. ‘部’의 오른쪽 偏을 省劃하여 만들었다는 宮南池出土 百濟木簡의 ‘ㄱ’는 문제가 있다. 이것의 用例는 ‘西 ㄱ後巷, 後ㄱ, 六ㄱ五方’ 등 세 가지인데 이것을 ‘部(ㄱ)’로 解釋할 경우, 言語外的인 問題가 惹起된다. 周知하다시피 新羅에는 ‘六部’가 있지만 百濟는 ‘五部’로 알려져 있다. ‘ㄱ’가 ‘部’의 省劃字로 韓國固有의 用法이라는 점을 受容하려면 百濟에서 ‘六部’의 存在與否에 대한 國史學界의 意見도 探問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ㄱ’는 漢簡에서도 그 例를 찾을 수 있어서 字形만으로는 이것을 韓國固有의 것으로 看做하기 어렵다. 敦煌出土 漢簡의 章草書體에는 ‘ㄱ’가 ‘聞’으로 解釋된다.³²⁾ 解釋의 差異도 문제지만 이러한 字形이

305)를 參照.

- 30) 符號의 國語史的 價値에 대해서 最初로 論議한 論文은 筆者의 寡聞인지는 몰라도 李丞宰(2000)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 31) 韓國木簡의 顛倒符에 대해서는 李成市(2001: 176~7)를 參照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顛倒符의 機能과 逆讀線 혹은 返讀線의 그것이 多少間에 混亂스럽게 記述한 面이 있지만 이러한 現象을 韓國木簡에서 처음 發見한 功勞는 대단한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顛倒符 ‘レ’을 ‘東아시아의 訓讀現象’의 觀點에서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에 대한 解析으로는 金文京(2002: 268~270)을 參照.

中國에서 由來되었는지 與否도 檢討할 必要가 있다. ‘ㄷ’을 ‘利’의 省劃字로 보는 觀點에 대해서도 論議의 餘地가 있다. 韓國口訣에서는 ‘ㄷ’가 ‘是’와 ‘利’에 모두 對應되지만 初期의 口訣일수록 이것이 ‘是’에 對應된다. 이때의 ‘ㄷ’는 ‘是’의 草書字가 簡素化하여 머리 부분만 남게 된 것인데 省劃의 原理와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例로, ‘爲’의 草書體가 簡素化하여 머리 부분만 남게 된 口訣字 ‘ㄴ’를 들 수 있다.³²⁾

大谷大學所藏의 ‘判比量論’은 現傳最古의 墨書新羅寫經이다. 1988년에 日本의 重要文化財로 指定된 만큼, 그것의 文化史의 價値는 日本에서도 認定된 바 있다. 당시는 奈良時代의 古寫經이라는 점, 書體의 美麗함, 佛敎學的 價値가 重要한 尺度였겠지만 小林方規(2002)의 發表 以後, 이것이 古代 韓日言語文化史를 밝히는 重要한 資料로 再評價받게 되었다. 言語文化史의 研究와 古寫經의 比較研究에서 그것의 價値는 至大하지만 여기에는 宿題가 있다. 좀더 精密한 實查가 必要하며 여기에는 大谷大學의 協助與否가 關鍵이고 學際的 協力도 要請된다. 判比量論에 關한 最終報告書는 中國文獻, 敦煌文獻 등 東아시아漢字文化圈의 漢字·漢文受容過程에서 나타난 諸現象들을 두루 檢討한 다음에 作成되어야 할 것이다.

32) 甘肅人民美術出版社(1995: 47)을 參照.

33) 聲調符와 節博士도 重要한 問題이다. 小林教授의 主張처럼 判比量論에 聲調符가 表示된 것이 事實이라면 이것은 아마도 東아시아 漢字文化圈의 漢字受容에 있어서 韓國이 가장 先進的이었음을 보여주는 證據일 것이다. 이시즈카(石塚晴通)教授는 四聲點이 破音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은 派生義와 原義를 구별하기 위한 加點에서 비롯한 것인데 ‘破音法’의 發生時期를 七世紀中葉으로 잡고 있다. 石塚晴通(2003: 24~38)을 參照. 日本의 漢籍訓點資料에서는 九世紀末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石塚教授의 調査로는 破音의 機能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聲調를 表示하는 것은 敦煌漢文資料에서도 9~10世紀에 少數確認된다고 하였다. 節博士에 대해서는 ‘華嚴經寫經造成記(755년)’에 梵唄를 불렀다는 記錄이 있으므로 判比量論에 梵唄의 樂譜에 該當하는 節博士가 있을 蓋然性이 있고 이에 따라 判比量論은 國樂史를 7世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繼起가 될 可能性도 있지만 이것은 聲調問題와도 얽혀 있으므로 學際間的 研究를 要한다.

4. 義相과 訓点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이 최근에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小林芳規(2002)에 의하면 이것이 新羅人의 저술이고 여기에 書寫된 點吐가 訓点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華嚴文義要訣(以下 要訣로 略稱)이 신라의 언어 및 문자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의미한다.³⁴⁾ 要訣은 일종의 華嚴學 講義要錄이다. 내용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핵심어들을 뜻풀이하고(釋名),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요약했으며(出體), 화엄경과 관련된 중요 내용들을 問答形式으로 설명하고 있다(問答).

要訣의 저자에 대해서 3가지 주장이 있었다.³⁵⁾ 첫째, 表訓이 지었다. 둘째, 表員이 지었다. 셋째, 表員과 表訓은 동일 인물이다. 그런데 위의 주장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事實들을 看過한 듯하다. 要訣의 第一卷 冒頭에는 ‘皇龍寺 表員 集’이라고 적혀 있다. 풀이하자면 황룡사의 表員이 ‘集’했다는 뜻이다. 佛書에서는 저자에 대해서 ‘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³⁶⁾ 말하자면 表員이 要訣을 結集하였지 著述한 것은 아니다.³⁷⁾ 表員과 表訓의 同一人物說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表員’과 ‘表訓’은 異表記일 가능성이 있다. 訓과 員에 대한 당시의 한자음들을 살펴보면³⁸⁾ ‘員’과 ‘訓’은 通用이 可能하였다. 한자음에 대해서는 고려대장경에 있는 반절표들을 참조할 수 있다. 여

34) 要訣에 대한 불교학적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김천학1998, 황규찬1998). 특히 김천학(1998)은 要訣의 異本들을 對校한 다음, 이러한 기초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술된 훌륭한 불교학 주석서이다.

35) 表訓說은 운허(1961: 911), 表員說은 황규찬(1998), 김천학(1998), 동일인물說은(이기영1976: 51)을 참조할 수 있다.

36) 阿難은 釋迦의 말씀을 集하였지만, 불경의 저자를 아난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集이란 스승의 가르침을 모아서 편집했다는 의미가 있다.

37) 東大寺 圓超가 延喜14년(서기 914년)에 찬술한 ‘華嚴宗章疎并因明錄’의 目錄에는 華嚴文義要訣 五卷 新羅表員述이라는 기록도 있다(小林2002: 55)

38) 운허 스님의 주장처럼(1961: 911) 表員은 表訓의 이표기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기에 따르자면 ‘員’은 ‘王分切’이었고 ‘訓’은 ‘吁運切’이었다(이규갑 편 2000: 108, 1005). 表員을 한자음에 따라 굳이 한글로 표기하자면 ‘표운’이 적당할 것이다.³⁹⁾ 당시에는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 의상도 ‘義湘, 義相, 義想’ 등으로 표기되었다.⁴⁰⁾

要訣이 어떤 책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살펴야 한다. ‘集’과 ‘述’이 혼동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저자를 밝히는 문제는 텍스트 간의(intertextual) 비교를 통하여 좀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要訣에는 ‘五科入’이라는 墨書가 있다. 이것은 내용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과목이라는 뜻으로 ‘七處九會義, 說經時義, 說經佛義, 六相義, 數十錢喻義’ 등을 가리킨다. 현전하는 의상대사의 저술로 ‘華嚴一乘法界圖’가 있다(韓國佛敎全書 2卷: 1-9). 화엄경의 핵심 사항인 海印三昧를 비롯하여 부처의 의미, 六相의 의미, 十錢으로 비유한 一乘緣起法의 의미 등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핵심 내용들이 要訣에는 더욱 자세하게 풀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책의 서술 방식이 모두 問答形式이다. 問答은 佛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만을 두고 表員이 義相의 講義를 結集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要訣의 중심 내용이 義相의 ‘華嚴一乘思想’과 일치한다는 점에 있다.

義相大師는 新羅 華嚴學의 祖宗이었다. 弟子가 3千이 넘었으며 亞聖이라고 불렸던 10대 弟子도 있었다.⁴¹⁾ 義相은 智通, 表訓 등의 제자들에게 熱講을 하였는데 강의록의 특징은 문답 형식이 중심이라는 점이다. 智通의 錐洞記도 의상의 강의를 기록한 것이다. 그 외 道身の 道身章, 法融의 法融記, 眞秀의 眞秀記 등도 의상의 강의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면 義相과 表員의 關係도 ‘高僧과 首弟子’일 蓋然性이 있다. 表員이 義相系가

39) 물론 員은 ‘于權切’인 경우도 있으나 이 때는 그 의미가 ‘官員’이므로, 인명에 적합하지 않은 듯하며 더욱이 學僧의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 ‘王分切’의 경우에 그 의미는 ‘益’인데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訓’과도 의미가 비슷하다. 발음과 의미가 유사한 漢字일수록 通用字일 蓋然性이 크다.

40) 의상 대사의 法諱에 대해서는 김지건 외(2001: 44-100)에 상세하게 記述되어 있다.

41) 이기영(1976: 27-8), 정병삼(1998: 110-6)에 의상 계열의 화엄학 문도들이 설명되어 있다.

아니라 元曉系라는 주장도 있다(황규찬1998: 27). 要訣에는 義相보다 元曉가 더 많이 引用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義相은 세 번이지만 元曉는 열다섯 번이다. 回數가 參考는 되겠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강의록이 의상에서 비롯되었다면 回數가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거니와 인용이 가장 많은 스님은 元曉大師가 아니라 法藏師이었다.⁴²⁾ 그렇다고 해서 表員을 法藏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義相師云……前後言錯 故不用也”라는 구절을 表員이 義相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여 표운이 義相系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⁴³⁾ 문제의 구절은 夾註이다. 要訣은 本文과 본문 속의 夾註로 구성되어 있다. 夾註야말로 表員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주로 본문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이 다른 경우이거나 補充說明이 필요한 경우에 夾註를 달았다. 表員이 달리 생각한 것을 두고 이것이 곧 義相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장도 그러려니와 이에 나아가 表員은 의상계가 아니라 元曉系라고 하는 결론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의 구절은 의상의 저서에서 확인된다. ‘一字向上來 二字向下去……一字向上去 二字向下來(韓佛全二, 華嚴一乘法界圖: 6)’ 등이 그것이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數十錢喻’는 一乘緣起法을 돈을 세는譬喻로 설명하는 구절이다. 算數法이란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따라 사람마다 차별이 있을 따름이라는 이치(數法無體性 智慧故差別)에 비추어 보면 ‘去’와 ‘來’를 두고 자유롭게 사유했던 의상대사의 표현이 문제될 까닭이 없다. 다만 用語를 통일하여 사용한다는 集者의 생각을 夾註로 덧붙였을 따름이다.⁴⁴⁾ 이것을 두고 義相의 數十錢喻에 대한 表員의 비판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이 표운이 義相系였음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이다. 첫째, 義相에 대해서는 항상 ‘師’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義相師, 相師) 元曉에 대

42) 법장사는 중국 화엄종의 三祖인 賢首를 말하는데 義相과 함께 智儼 門下에서 修學하였다. 要訣의 引用回數에 대해서는 김천학(1998: 423-6)에서 상세히 밝혀 놓았다.

43) 여기에 대해서는 황규찬(1998: 26)을 참조할 수 있다.

44) 夾註의 역할은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는 데에 있다.

해서는 ‘曉云’이라는 표현도 있다(曉云 以易顯難). 만일 表員이 元曉系였다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둘째, 의상에 대한 표기로 義湘, 義相, 義想 등 세 가지가 있었다. 의상의 직계 제자들은 ‘義相’으로 표기하였다. 要訣에서도 ‘相師 혹은 義相師’ 등과 같이 ‘相’으로만 表記되었다.⁴⁵⁾

말하자면 表員은 義相系이고 要訣은 義相의 講義를 結集한 것이다. 夾註를 통하여 表員의 생각이 要訣에 반영되었으므로 集과 述이 혼동되었음직한 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集’은 集인 것이다. 表員이 義相系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의상의 제자였던 表訓이 義相華嚴學을 整理하고 이것이 日本 華嚴學 成立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要訣은 8세기경에 일본으로 傳來되어 수차례 書寫된 바 있다.⁴⁶⁾ 元祿18년(서기 799년)에는 近事僧인⁴⁷⁾ 行福이 要訣을 書寫하였다(小林2002: 55).⁴⁸⁾

5. 結語

日本の 華嚴宗은 新羅를 통하여⁴⁹⁾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데⁵⁰⁾ 8世紀는 日本 華嚴宗의 성립기였다. 이에 불경의 해석도 신라인의 저술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新羅는 그 이전부터 원광법사, 자장율사, 의상 대사에 이르기

45) 의상의 法諱에 대한 논의(김지견 외(2001: 44-100)를 받아들인다면 요결의 集者인 표원은 의상의 법통을 이은 제자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46) 일본의 신라 불경 수입과 사경 연대에 대해서는 최재석(1998: 262-82)을 참조할 수 있다.

47) 근사승이란 재가인으로 오계를 받은 승려를 가리킨다.

48) 원효의 저서 判比量論도 671년경에 저술된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740년경에 사경되었다(최재석1998: 263). 판비량론에 관한 해석 및 원문 사진 및 판독문은 이영무(1987: 176-97)을 참조할 수 있다.

49) 일본의 조선술의 발달 과정이나 당시의 한반도 근해 해상권을 新羅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日本이 唐과 직접 교역을 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신라화염중은 당나라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50) 고대 일본과 신라의 불교 관계 교류사에 대해서는 최재석(1998)을 참조할 수 있다.

까지, 많은 高僧들이 중국에서 修學하였으며 원효대사와 같은 大思想家도 있었다.⁵¹⁾ 일본에서 訓点이 발달한 것은 9세기 이후로 알려져 있다. 日本에서 漢文을 읽기 시작한 것은 8세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訓点이 표시된 것은 9세기초였다(小林芳規2002: 67-8). 이러한 의문은 日本의 訓点이 新羅口訣을 參考하여 發達했다는 점에 依해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佛經을 解釋하기 위하여 당시의 日本人들이 新羅口訣을 參考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⁵²⁾ 漢文과 韓國語는 統辭와 形態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語順의 차이와 吐(조사어미류)의 존재가 그것이다. 漢譯佛經의 國語化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도 바로 이 두 가지였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韓國語와 言語構造가 가장 類似한 日本語에도 마찬가지로 適用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韓國의 口訣과 日本의 訓点은 密接한 關係를 維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要約하자면, 8世紀 무렵 新羅口訣이 日本에 傳來되었다. 전래 초기에는 日本人들이 이것을 參考하였지만⁵³⁾ 9세기 이후부터는 日本이 獨自의인 文字體系를 發展시켰을 것으로 斟酌된다.⁵⁴⁾

51) 당나라에 유학한 신라 학생들의 발자취에 관한 내용은 卞麟錫(2000)을 참조할 수 있으며 신라의 불교사상에 관한 것은 이영무(1987), 의상기념관 편(200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52) 신라인들이 한문으로 된 불경을 해독하는 방법이 바로 '口授秘訣'의 口訣이었던 것이다. 신라인의 구결이 일본인들이 불경해석의 한 모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엄문의요결의 구결을 그당시 일본에서 상세하게 필사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53) 사토본 화엄문의요결에도 신라인이 사용하였던 구결부호들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일본 승려들이 문자언어체계가 일본과 유사했던 신라인들의 구결을 이용해서 불경해석을 했던 흔적이 아닌가 한다.

54) 사토본 화엄문의요결에 보이는 구결들은 신라인의 것이었으며 이것이 8세기 이후의 일본의 훈점 자료와 체계가 달랐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小林芳規(2002: 67-8)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다. 일본에서 한문을 읽은 것은 8세기 이전인데 訓点을 기입한 것은 9세기초부터이다. 이것은 8세기 신라화엄종의 수용과 신라인의 훈독방식이 일본 훈점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參考論著

- 甘肅人民美術出版, 敦煌漢簡書法精選, 蘭州新華印刷廳: 中國 甘肅省, 1995.
- 國立慶州博物館, 『文字로 본 新羅』, 학연문화사: 서울, 2002.
- 國立奈良博物館, 大佛開眼1250年東大寺のすべて, 國立奈良博物館: 日本 奈良, 2002.
- 金東華, 『삼국시대의 불교사상』, 민족문화사, 1987.
- 金永旭 外 多數 共著, 국어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시립대 인문학총서 1, 혜안: 서울, 2001.
- 金永旭(가), 11세기 문법형태들을 찾아서,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金永旭(나), 瑜伽師地論 점토의 해독방법연구, 구결연구 7: 57-77면, 2001.
- 金永旭(가),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研究, 口訣研究10: 47-77면, 口訣學會, 2003.
- 金永旭(나), 11세기 국어 문법 형태 연구, 국어교육 111호: 293-312면, 한국국어교육 연구학회, 2003.
- 金永旭(다), 百濟 吏讀에 對하여, 口訣研究 11: 125-151면, 口訣學會, 2003.
- 金煥泰, 신라불교연구, 민족문화사, 1987.
- 김상일,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어본 元曉의 判比量論, 지식산업사, 2003.
- 김성철, 元曉의 判比量論, 佛教原典研究 第2號,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2001.
-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지식산업사, 2003.
- 김완진, 『文學과 言語』, 탑출판사, 1982.
- 김천학 역주, 『화엄문의요결문답』, 민족사, 1998.
- 南豊鉉,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태학사, 1999.
- 南豊鉉, 조건법 연결어미 ‘-면’의 발달, 구결연구 6: 11-40면, 2000.
- 南豊鉉, 설총과 차자표기법, 새국어생활 11권 3호: 21-36면, 국립국어연구원, 2001.
- 南豊鉉, 新羅時代 口訣의 再構를 위하여, 口訣研究 8: 77-109면, 口訣學會, 2002.
- 卞麟錫, 『당 장안의 신라사적』, 아세아 문화사, 2000.
- 石塚晴通, 聲點의 起源(김혜진·오미영 譯), 口訣研究 11: 23-52면, 口訣學會, 2003.
- 小林芳規(가),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特に, ‘判比量論’에書き入れられた 新羅の文字と記號--, 書香 第19號: 4-6면, 大谷大學圖書館報: 日本 京都, 2002.
- 小林芳規(나),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구결연구 8: 50-76면, 2002.
- 小林芳規(가), 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號--京都 大谷大學藏 ‘判比量論’에

- 서의 發見--(尹幸舜 譯), 口訣研究 10: 5~30, 口訣學會, 2003.
- 小林芳規(나),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 大谷學報第八十二卷 第二號: 58-88면, 日本 京都, 2003.
- 小林芳規(다), 八世紀の日本における角筆加點とその源流, 日韓漢字·漢文受容に關する, 2003.
- 小林芳規(라), 奈良時代の角筆訓點から關た華嚴經の講說, The Great Buddha Symposium at Todaiji, 2003.
- 신라문화연구소, 황룡사의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22, 2001.
- 尹善泰,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新羅古文書와 木簡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2000.
- 義相, 華嚴一乘法界圖, 한국불교전서 제2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1-8면, 668.
- 의상기념관 편, 의상의 사상과 신앙연구, 불교시대사, 2001.
- 이기영, 華嚴一乘法界圖의 根本精神, 義相의 思想과 信仰研究, 불교시대사, 2001.
- 李成市, 『만들어진 고대』, 삼인: 서울, 2001.
- 李丞宰, 새로 발견된 角筆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권 3호: 135-152면, 국립국어연구원, 2000.
- 李丞宰, 화엄경 권22의 각필 부호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7: 1-32면, 2001.
- 이영무, 『한국의 불교사상』, 민족문화사, 1987.
- 이 용, ‘乙’에 대하여, 구결연구 2: 131-160면, 1997.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 伽山文庫, 1994.
- 李智冠, 韓國佛教所衣經典研究, 伽山文庫, 1969.
- 정병삼, 『의상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鄭在永, 순독구결 자료 ‘범망경 보살계’에 대하여, 구결연구 1: 127-177면, 1996.
- 鄭在永,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진본 화엄경 권20에 대하여, 구결연구 7: 33-56면, 2001.
- 鄭在永, 百濟의 文字 生活, 口訣研究 11: 87-124면, 口訣學會, 2003.
- 최재석, 『고대 한일 불교 관계사』, 일지사, 1998.
- 황규찬, 『新羅表員의 華嚴學』, 민족사, 1998.
- Otani University Library, Catalogue of Valuable Rare Books of the Otani University Library--Buddhist Books Edition--, Otani University: Kyoto, 1998.
- Shakunthala Jagannathan, Hinduism, Vakil, Feffer and Simons Pvt. Ltd, India, 1984.

[Abstract]

**The Korean Kugyol(口訣) and its influence on
Japanese Kuntten(假片)**

Young-wook Kim
(University of Seoul)

The writing systems of the Silla dynasty, the Kugyol(口訣), had influenced the earlier states of Japanese Kuntten(假片) during the 8th century. Japanese developed their own writing system, Kuntten(訓点) after the 9th century. The Silla Kugyol was inscribed by Gappil(角筆), a kind of ancient stylus, which seems to be originated in China and India. There are two main streams of Asian script culture. One is from China: a brush-pen culture for East asian calligraphy, named Seoye(書藝) or Seodo(書道). The other is from India: a tusk-pen culture for inscribing Buddha's words.

In Korean peninsular, we can find the traces from Buddhist texts inscribed by the Gappil, a tusk-pen. We can find new writing system in the books of the Silla, penod, Panbilyanglon(判比量論), Hwaecommuneuiyogyol(華嚴文義要訣) etc. The scripts inscribed by gappil was a totally phonetic system with dots and lines etc., like Hangul strokes was invented by I king Sejong 800 years later. The old system was used until 15th century before the invention of Hangul scripts.

keywords: writing system, brush-pen culture, tusk-pen culture, calligraphy, Kugyol, Goppil, Buddhist texts, Kuntten, Kana

접 수 일 : 2006년 10월 30일

심사기간 : 2006년 11월 1일~11월 20일

재 심 사 : 2006년 11월 27일

게재결정 : 2006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